로컬플러스

김제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 전국복지시설평가 A등급

김제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세)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5년 전국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아 2012년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매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전국 429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과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성과에 대해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항목 70여개 지표로 세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 설치되어 아동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대와 소통하며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마을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삶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중심 사례관리를 실천하고, 같이의 가치를 더하는 마을 공동체 실현 및 최상의 서비스 실천을 위하여 민관협력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권영세 관장은 "이번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김제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이 융합된 결과"라며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실현을 위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벽골제 앞 안전한 지하보도 개통

김제시는 벽골제와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청소년수련원)를 통과하는 국도29호선에 지하보도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21일 개통했다.

국도와 인접한 청소년수련원은 전국 200여 학교에서 연간 5만여명의 학생들이 찾는 수련시설로서 벽골제 체험시설과 연계하여 교차 왕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도29호선 도로는 화물차량 통행량(1,825대/일)이 많고 직선도로 구간으로 과속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에서는 국비 26억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0월부터 공사 착수 하여 6월 20일까지 주변정비공사 및 CC카메라 설치공사 등을 마무리하고 이건식 김제시장, 정희운 제전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성근 건설과장이 개통에 따른 경과보고 후 참석자 전원이 에스컬레이터 시승식을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금구면, 지역발전협 임원회의

김제시 금구면(면장 강갑구)에서는 23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지역발전협의회 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난 지역발전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오는 9월 10일로 확정지은 제10회 금구면민의날 행사 성공 개최를 위해 사전협의와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금구면 행사를 주관하는 지역발전협의회의 내실있는 행사 운영을 위한 정관 개정안에 대한 심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금구면민의 날」 행사는 매년 주민 2,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화합의 장으로 식전행사, 개막식, 체육행사, 문화행사 순으로 진행되며 세부계획에 대해 열띤 논의를 갖고, 추후 회의를 거쳐 차별화된 연출, 기획사의 사업수행의지 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 이벤트사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장종성 지역발전협의회장은 "지역에 대한 주민의 자긍심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한 면민의날이 지역민과 출향인이 함께 어울어지는 한마당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며 면민의날 성공개최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평선축제 - GS리테일 스폰서십 체결

GS리테일, 김제시에 후원금 협찬, 전라권 편의점 포스터 부착 등 지원

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위원장 정희운)는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리는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5년 연속 대표축제 도약과 수익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 23일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GS리테일과 후원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는 대한민국 최초 4년 연속 대표축제로 차별화된 농업의 가치 조명과 도작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금년을 글로벌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축제 수익성 강화를 위한 축제로 기획하고 있다.

GS리테일은 1974년 GS슈퍼마켓을 시작으로 편의점, 헬스&뷰티 전문점 등을 운영하는 유통회사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사업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지평선축제와 GS리테일 상호간의 이해관계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는 GS리테일측에 지평선축제장에 방문한 관광객 이용을 위한 판매부스와 기반시설(전기 등)을 제공하고, GS리테일은 후원금 협찬, 전국 GS25편의점 동영상 광고(지평선축제 편) 제공, 전라권 GS25편의점 포스터 부착 및 전단지 비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GS리테일 호남권 최정모 팀장은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김제지평선축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축제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희운 김제지평선축제제전위원장은 "금번 제18회 김제지평선축제의 후원사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을 갖춘 GS리테일과 스폰서십을 맺게 되어 축제 홍보마케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축제 소득기반 창출 및 기반시설 강화를 통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 및 수용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번에 투자하는 17개 특장차기업은 380억원 투자, 350명 일자리창출로 캠핑트레일러, 청소차량, 고소작업차, 운반카, 부품생산 등 다양한 특장차가 생산되어 대한민국의 특장차산업 메카로 육성되게 된다.

김제 백구농공단지 입주 확정기업 투자 협약

17개 기업 특장차 산업 특화

국내 최초 특장차 집적화단지인 김제 백구농공단지 입주를 확정한 17개 기업 투자 협약식이 23일 김제시청 2층 상황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17개 기업대표와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 이건식 김제시장,

정성주 김제시의장, (재)전북자동차기술원,전북특장차발전협의회가 참석하였으며 국내 대표 상용차제작업체인 타타대우, 현대상용차 고위관계자도 참석하여 특장차산업 성공을 기원하였다.

이번에 투자하는 17개 특장차기업은 380억원 투자, 350명 일자리창출로 캠핑트레일러, 청소차량, 고소작업차, 운반카, 부품생산 등 다양한 특장차가 생산되어 대한민국의 특장차산업 메카로 육성되게 된다.

투자확정된 17개기업중 도외기업은 3개사이지만 전국 특장차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산재해있는 도내기업 14개사가 백구단지로 집적화하여 경쟁력 확보와 특장차산업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다.

현재 70% 분양확정된 백구특장차단지는 군산 타타대우상용차와 완주 현대상용차와 접근성이 뛰어나 도내·외 특장차 업체들로부터 잔여 부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여 연말까지는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증장비 12종, 성능시험장비 10종을 갖춘 특장차자기인증센터 구축 으로 특장차생산, 인증절차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져 경기도 화성시까지 가는 불편해소와 물류비 절감은 물론 (재)전북자동차기술원의 기술지원 까지 가능해져 기업의 입맛을 당기고 있다.

전라북도특장차발전협의회장이면서 특장차단지로 이전하는 최길호 회장은 "이번 집적화단지의 조성은 낙후된 특장차산업 발전에 새로운 장이 될 것이며 입주 기업 역시 특장차산업 대표 주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건식김제시장은 "백구특장차집적화단지가 대한민국 특장차산업 수도가 되도록 선도적인 역할과 김제시의 산업 다변화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육성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1기분 자동차세 41억원 부과

'스마트위택스'로 편리하게 납부

정읍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1억5천600만원(3만8천658건,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에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억5천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동기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1천398여대(50,544대→51,942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납부기한은 이번 달 말일인 6월 30일이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경형승용차, 화물 및 승합자동차 등) 6월에 1년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가산되고, 자동차세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 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한 후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를 이동시킨 후(PC→스마트폰)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하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까지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어 점차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시는 6월은 하반기세액에 대한 연납이 가능한데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세액을 연납할 경우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시장·군수협의회 부안개최

2016년 제5차 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건식 김제시장)가 23일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장·군수협의회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개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지원대책, 지방하천정비사업 재정지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군산항을 비롯한 지역무역항의 자동차 환적운송을 금지하고 전남 광양항에만 이를 허용함으로써 편파적인 특혜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항만 카보타지 시행계획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해양수산부의 시행계획안 철회가 확정될 때까지 시군 간 공조 체제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이건식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해의 반을 보내면서 연초에 계획한 목표와 다짐을 되새겨 마음을 다잡아야 할 시기"라며 "'일각천금(一刻千金)'의 마음으로 전북 공동 발전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중앙도서관은 저학년은 '놀이로 배우는 재미있는 우리 문화', 고학년은 '책 속에서 만나는 초록별 우리 지구', 신태인도서관은 '책 속에서 만나는 초록별 우리 지구'라는 소주제로 운영된다.

초등독서교실 참가자 모집

정읍시립도서관, 여름방학 기간중에

중앙도서관과 신태인도서관 등 정읍시립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2016년 초등 여름독서교실을 개설하고 하여 참가자를 모집한다.

시립도서관에 따르면 중앙도서관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저학년(1~3학년) 교실(25명), 8월 8일부터 12일까지 고학년(4~6학년) 교실(25명)을 운영하고, 신태인도서관은 8월 1일부터 5일까지 전 학년을 대상으로 독서교실(25명)을 운영한다.

이번 여름독서교실은 '신나는 방학 생활, 재미있는 책 읽기'라는 큰 주제 아래, 중앙도서관 저학년은 '놀이로 배우는 재미있는 우리 문화', 고학년은 '책 속에서 만나는 초록별 우리 지구', 신태인도서관은 '책 속에서 만나는 초록별 우리 지구'라는 소주제로 운영된다.

전통문화 교실에서는 제기 만들기와 전통 수첩 만들기, 전래놀이 배우기 등의 독후활동을 진행하고 초록별 우리 지구 교실에서는 친환경 세제 만들기, 재활용품을 이용한 만들기 활동, 친환경 건강 음료 만들기 등의 독후활동을 진행한다.

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덥고 습해서 무료해지기 쉬운 여름방학 동안 함께 책을 읽고 관련 독후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과 상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참가 신청은 7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각 도서관에서 개별 방문접수를 하거나 학교별 단체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우수 수료자에게는 정읍시장상,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장상이 수여된다. 중앙도서관은 1층 안내데스크, 신태인도서관은 1층 자료실에서 접수를 받는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중앙:539-6435 / 신태인:539-644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업용 건설기계 운전교육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남선)와 부안제일고등학교(교장 조병규)는 부안지역 농업인 35명을 대상으로 농업용 건설기계(굴삭기·지게차) 운전교육을 했었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계가 농업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농업인의 자가 정비능력 배양과 안전사고 예방을 하려고 실시되며 이용률이 높은 굴삭기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진행된다.

교육은 지난 2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한 달 간 월~금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하루 3시간씩 부안 제일고등학교에서 이뤄진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산업건설자격취득 교육이 농업인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안전하고 빠른 농 작업을 통한 노동력 감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부안군은 이번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불친절·바가지요금·원산지미표시 퇴출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부안군 여름휴가철 음식점 3無 운동 추진

부안군이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사계절 천혜의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축복의 땅 부안을 찾아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도록 부안군 외식업 지부와 함께 음식점 3無(불친절·바가지요금·원산지미표시)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은 부안지역 음식점 영업주들은 손님과의 약속이 담긴 3無 운동 표지판을 음식점 내에 부착하고 성공적인 3無 운동 실천을 다짐했다.

또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욱 안전한 음식을 제공코자 위생모와 마스케어를 착용하는 등 청결과 위생관리에 집중했다.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풍요한 먹거리를 선물하고 싶다"며 "올 여름 꼭 한 번 부안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음식점 영업주들이 불친절, 바가지요금, 원산지 미표시 없는 부안을 만들기 위해 능동적이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부안에서 가족·연인과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고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